

종교와 영화 제6강

# 종교와 의미의 문제 <밀양>

# 1. 밀양

- ▶ 한국 영화의 반개신교적 시선
- ▶ 밀양密陽 Secret Sunshine(2007)
  - ▶ 원작: 이청준, <벌레이야기>
  - ▶ 1) 밀양에 오다
    - ▶ 약국아주머니 김집사의 선교
    - ▶ 선교의 도식
      - ▶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
      - ▶ ‘불행한 분’: 구원의 전제가 되는 타락한 세계



# 1. 밀양

## ▶ 2-1) 준이 실종 사고, 기도회 참석

### ▶ 신애의 질문

- ▶ 신정론의 도식: “하나님이 계시다면,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면, 왜 우리 준이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요?”

### ▶ 부흥집회에서 회심

## ▶ 2-2) 신애의 개신교인으로서의 삶

### ▶ 용서 결심, 살인자 면회

## ▶ 3) 교회로부터 돌아선 신애

### ▶ 반기독교적 태도

### ▶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



## 2. 죄와 용서

### ▶ <밀양>이 제기하는 물음

#### ▶ 한국 개신교의 죄의 용서의 문제

##### ▶ 개인이 혼자 회개하고 알아서 용서받는 전통

- ▶ 용서의 문제가 하느님과 나의 일대일 관계에서 다루어짐

- ▶ 회개의 제도적 장치 미비

- ▶ 죄의 문제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  
망각, 사회 정의의 문제에는 소홀

- ▶ 공동체 내에서 관계 회복 과정 누락

##### ▶ 회심 경험이 구원받음의 징표가 됨

- ▶ 강렬한 회심 체험, 구원의 즉각성

- ▶ ‘구원파’, 한국 개신교회의 구원 개념의 극단화

## 2. 죄와 용서

### ▶ 원작과 다른 결론: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

#### ▶ 1. 한 신문 기사

- ▶ 범인이 형 집행 전 마지막 남긴 말이 ‘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나가며, 그 자비가 희생자와 가족에게도 베풀어지기를 빌겠다’는 요지였다.

#### ▶ 2. 이청준, <벌레 이야기>

- ▶ 희생자의 입장에서 의문을 되새김
- ▶ ‘하나님은 그를 정말 용서했고, 그럴 권리가 있을까! 그 섭리자의 사랑 앞에 사람은 무엇인가. 인간의 존엄과 권리란 무엇인가!’

## 2. 죄와 용서

### ▶ 3. 이창동, <밀양>

- ▶ “<벌레 이야기>에는 광주에 관한 내용이 암시조차 없는데도 나는 광주에 관한 이야기로 읽었다. 그 소설이 독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. 피해자가 용서하기 전에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, 라고. 그리고 가해자가 참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냐,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 것이냐.”

### ▶ 4. 영화화

- ▶ 밀양이라는 공간 도입
- ▶ 등장 인물의 차이
  - ▶ 원작에서는 객관적 시선의 남편이 서술자의 역할 / 영화에서는 종찬(송강호)이 신애의 주변을 맴돌며 관찰자 겸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함.
  - ▶ 원작의 여인(알밤이 엄마)은 고독했지만 영화에서는 이웃들과의 관계(ex. 양잠점 주인)가 중요한 역할.
- ▶ 원작의 여인은 자살. 영화는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 제시

## 2. 죄와 용서

- ▶ 용서의 다른 사례: 아미시 Amish 종교문화
  - ▶ 전쟁을 반대하는 기독교 공동체
    - ▶ <워트니스>(1985) 중에서
  - ▶ 니켈 마인스의 아미시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
    - ▶ 가해자 가족들을 이 사건의 희생자라고 인식. 가해자 아버지를 안고서 ‘당신을 용서합니다’
    - ▶ 가해자 가족과 아미시 희생자들이 서로의 장례식에 참석
- ▶ 아미시의 용서의 문화
  - ▶ 일상적인 기도와 예배를 통해 체화
    - ▶ “일흔의 일곱 번이라도 용서”(마태복음 18장) / “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,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.”(35장)
    - ▶ “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” (주기도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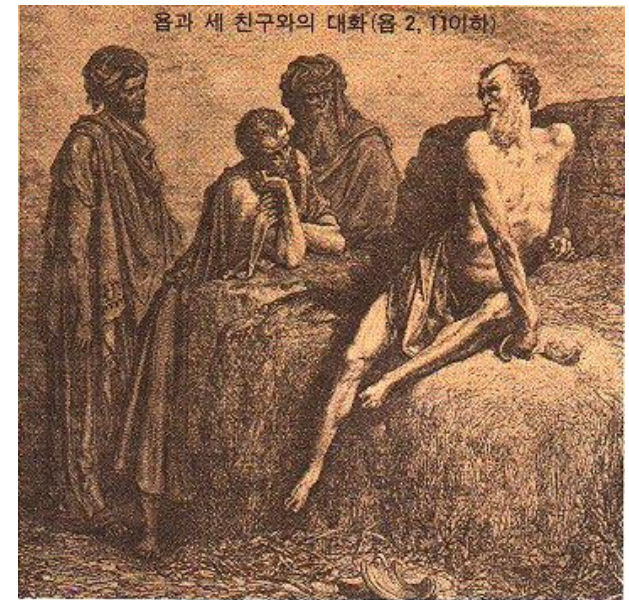
### 3. 고통의 의미

- ▶ 신정론神正論theodicy(theos + dike)
  - ▶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을 하느님의 선함과 공의로 해석하는 이론(라이프니츠, 17세기)
  - ▶ 에피쿠로스의 오래된 질문
    - ▶ 신은 악을 없애고 싶어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?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가? 그렇다면 왜 악이 만연한가?
  - ▶ 막스 베버가 종교의 보편적 문제로 일반화, ‘의미 이론’으로 발달
  - ▶ 신정론의 전제: 유일신론의 물음
    - ▶ 1) 하느님은 전능하다
    - ▶ 2) 하느님은 사랑이 많다
    - ▶ 3) 세상에는 고통이 있다



### 3. 고통의 의미

- ▶ 읍 이야기: 신정론의 고전적 사례
  - ▶ 의로운 신자 읍의 고난
    - ▶ 갑자기 재산이 날아가고, 자식들이 죽고, 병을 얻어 온 몸에 종기를 뒤집어 쓴 채 “잣더미” 위에 앉아있는 신세
  - ▶ 친구들의 설명
    - ▶ 인과응보적 논리
    - ▶ “잘 생각해 보아라.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? /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? / 내가 본 대로는,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.”
  - ▶ 의인도 막을 수 없는 고난의 의미는?  
(<트리 오브 라이프>의 설교)



### 3. 고통의 의미

- ▶ 신현神顯theophany, 응답
  - ▶ "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?  
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, 네가 거기에 있길라도 하였느냐?"
- ▶ 인간의 지적 이해를 초월하는 신의 활동
  - ▶ 인과응보적 논리의 초월
- ▶ 욥기 마지막장의 문제
  - ▶ "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."
    - ▶ 액자식 구성, 후대에 첨가된 이야기일 가능성 있음
  - ▶ 물질적 축복의 관점에서 고통해



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 
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

욥기 8:7

### 3. 고통의 의미

#### ▶ 신정론, 여러 답변들

##### ▶ (1) 자유의지를 남용한 인간의 죄악 심판

▶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인과응보식 설명. 히브리 성서의 주된 기조인 신명기 사관. “예수를 믿는데 왜 강도를 만나?”

▶ 의로운 자, 죄 없는 이들의 고난을 설명하기 힘들

##### ▶ (2) 교육의 과정

▶ 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 일부러 시련을 주신 것. 강하게 키우는 것. 고통에 의미 부여. “세상 모든 일은 주님의 뜻”

##### ▶ (3) 종말론적 신정론

▶ 현세의 고난은 종말에 보상 받음

##### ▶ (4) 신비의 신정론

▶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신의 뜻을 이해할 날이 올

### 3. 고통의 의미

- ▶ (5) 역설: 고통은 신과 만나는 자리
  - ▶ 현대 신학, 전능성 테제를 약화하는 경향
    - ▶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정론
  - ▶ 고통 받는 신, 신과 친교를 맺는 통로 역할
- ▶ <오두막>
  - ▶ 밀양이 던지는 질문의 미국 버전
    - ▶ 기독교 전통 내에서의 해답 탐구
  - ▶ 하느님 아줌마
    - ▶ 신의 현대적 표상
- ▶ <사일런스>
  - ▶ 엔도 슈사쿠의 <침묵>
  - ▶ 침묵의 소리

### 3. 고통의 의미

- ▶ “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뜰 안의 정적과 매미소리와 파리의 날개 소리였다. 한 인간이 무참히 죽었는데도 바깥 세상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. 이것이 순교란 말인가?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? 왜 당신은 침묵하고 있는가?”

- ▶ 역설적 만남의 순간

- ▶ “뵈어도 좋다... 나는 너희에게 밝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.”

- ▶ <아뉴스 데이 Agnus Day>

- ▶ 신학적 언어가 단절된 고통의 상황

### 3. 고통의 의미

- ▶ <시리어스맨>, 현대의 욕 이야기
  - ▶ 교육의 의미로 이해하려고 하지만
  - ▶ 랍비의 농담 같은 대답
    - ▶ “하느님이 우리에게 답을 줘야 하는 건 아니네.”
    - ▶ 해답은 논리적 설명의 형태로 주어지지 않음
- ▶ <구해줘>, 사기꾼 목사의 진실된 발언
- ▶ 종교는 단순히 삶의 해답이 아니라 해답을 추구하는 ‘과정’
  - ▶ 완결된 답변의 함정, 하느님의 뜻을 안다는 오만을 경계해야 함
  - ▶ 삶의 나침반으로서의 종교